

대한제국 말기와 식민지시기 발명·발견 소재 소설의 행보*

— 일본 유학생 집단 지식인의 ‘발명’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

최 애 순**

요약

대한제국 말기 유입된 초창기 과학소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에는 서구 문물의 발명, 발견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이에 반한 조선의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을 개탄하며 구습 타파를 외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과 조선의 현실을 계몽하고자 하는 일본 유학생들의 의지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 문물의 수용’이었다. 또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을 내세우고, 발명·발견을 장려함과 동시에 역사담이나 영웅의 일대기를 실어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재일본 유학생 집단은 식민지시기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여 예기치 않게 국내 민족주의 노선과 결을 같이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1907년과 1908년 애국계몽의 일환으로 들어온 과학소설 번역이 이후 국내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에 재일본 유학생 잡지에 글을 싣기도 하면서, 유학생 잡지의 정서나 유학생 집단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낸 소설을 창작한다. 이광수의 생애는 일본 유학생 집단이 조선으로 귀국 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들이 신봉했던 과학발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광수의 과학에 대한 인식보다 작품 안에 그려진 신문물로서의 발명·발견 소재, 풍경으로 인식된 화학실험 등, 식민지시기 조선인에게 ‘발명과학’이 이질적이고 모순된 풍경으로 들어오며 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1213)

**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용된 역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불어 발명·발견 소재를 서구의 풍경으로 들여오는 데 일본 유학생 집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일본 유학생 잡지에 실린 「해저여행기담」에서부터 유학생 경험을 가진 이광수 소설로 이어지기까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았다. 따라서 이광수 개인의 과학에 대한 인식보다 『개척자』에 드러난 김성재가 식민지 유학생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간주하고,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과학’이라는 용어 대신 ‘발명·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발명·발견에 대한 기계나 기술, 혹은 풍경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발명·발견 소재를 차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광수의 『개척자』와 『사랑』은 ‘과학소설’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도 ‘과학’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발견’ 소재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행동이 왜 모순투성이인지, 애국계몽운동과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들어왔던 ‘과학’은 왜 민족을 부강하게 하는 길로 가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 혹은 공업(이공계), 과학소설을 가장 먼저 앞서서 들여왔던 일본 유학생 집단의 특성이 조선으로 귀국 후에 살았던 삶의 충돌, 그리고 실체가 없는 발명·발견과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를 되풀이하는 발명·발견 소설 속 그들의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국내에 처음 유입된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 그리고 이 작품들이 영향을 끼친 국내 창작소설 이광수의 『개척자』와 『사랑』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유학생, 애국계몽, 민족개조, 이광수, 발명, 발견, 지식인, 부국강병, 친일, 「해저여행기담」, 『철세계』, 『개척자』, 『사랑』

목차

1. 서론
2. 초창기 쫓겨온 과학소설의 유입과 조선의 현실
3. 『철세계』의 이중성- 한학자 이해조의 과학소설 번역의 민족계몽 추구의 귀결
4. 이광수의 실체가 없는 발명과학과 죽음의 대리로서의 발명과학 『개척자』와 『사랑』
5. 친일과 민족계몽 사이의 모순

1. 서론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과학소설 작가는 쥘 베른이다. 1907년과 1908년으로 시기적으로도 잇달아 번역되었다. 1907년 일본에서 간행된 유학생 잡지인 『태극학보』를 통해 최초로 유입된 과학소설 「해저여행기담」은 이후 국내 창작 ‘과학소설’ 경향이나 ‘과학’의 수용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해저여행기담」은 『태극학보』에 11회까지 실리며 역자도 박용희, 자락당, 모험생으로 바뀌고 완역되지도 못한다. 1908년 번역된 『철세계』는 이해조의 번안으로 회동서관에서 1908년 단행본 형식으로 출간된다. 「해저여행기담」이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다면, 『철세계』는 한글을 사용하여 더 널리 읽히기를 시도했다. 1907년과 1908년 대한제국 말기에 가장 먼저 번역된 과학소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는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염두에 두고 수용되었다기보다 정치적 색채와 계몽운동의 성격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07년과 1908년은 을사조약 이후 고종이 강제 폐위를 당하고 국권이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의 위태로운 대한제국 말기이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난 분위기에서 일본에서 유학생을 필두로 한 『태극학보』도 애국심을 고취하고 조선 민족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로 간행된다. 「해저여행기담」의 번역 목적도 ‘재미’보다는 ‘과학지식’을 전파하고 과학으로 부국강병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는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같은 경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역자의 경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일단 「해저여행」이 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이 아닌 ‘기담’ 혹은 아예 장르명이 붙지 않았지만, 『철세계』는 ‘과학소설 털세계’라고 명확하게 장르명을 달고 있다. 「해저여행기담」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집단이 간행한 잡지에 게재된 것이라면¹⁾, 『철세계』의 역자인 이해조는 일본에서 유

1) 역자 박용희는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박용희의 이력은 찾기가 힘든데, 손성준의 논문에서 귀국 후의 박용희의 이력까지를 다루고 있어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손성준,

학한 경험이 없는 한학자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쥘 베른 과학소설의 번역이지만, 「해저여행기담」이 일본판을 옮긴 것이라면, 『철세계』는 중국판을 번역한 것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해저여행기담」은 한, 중, 일 삼국이 처한 상황과 우리 민족이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경고를 담아내는 목소리가 들어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한산도의 애국시의 구절을 언급한다든가 동해 ‘울릉도’의 풍부한 해양생물의 보고가 기재되어 있다²⁾는 점에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철세계』는 이해조가 중국판을 번역하여 옮긴 것이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장수춘에 투영되어 읽혔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해조가 왜 일본어판본이 아닌 중국어 판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와, 그의 중국어 판본 선택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해조의 워싱턴 전기 『화성돈전』과 『철세계』, 『자유론』은 한일합방 이후 모두 금서 조치가 된다.³⁾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는 쥘 베른의 소설이 서구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 중, 일에서 이권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읽힐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를 통해 한국에서 대한제

『태극학보』의 〈역사담〉 번역과 그 정치적 지향: 개신교와 『태극학보』의 연관성 시론,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 12, 316면 참조.

2) 이때 네모가 일행더러 이르기를 “이 섬은 1801년에 서양 장군 크레스토가 발견한 고도(孤島)가 아니라 곧 수중 은암(隱巖)인데 이곳으로부터 일본까지 거리가 불과 수백 해리이며, 흑조(黑潮)와 한류(寒流)가 만나는 지점이니 곧 열매 어족과 한 대 어군(魚群)의 집합처이다. 이 어군이 다시 오호츠크해로 들어가 가라후토-홋카이도 해협에서 유명하며, 또 그 한 갈래는 니혼카이(日本海)로 유입(流入)하여 조선 동해안을 연유(沿遊)하므로 그 나라는 곧 세계 3대 어산장(魚産場)의 제일인 배령해 어족이 출입하는 곳이다. 이러한 까닭에 해산물의 풍부함이 무진장이라 하겠다. 두만강 근해와 영흥만 외해에는 고래가 성나 울며 어별(魚鰓)이 군지하고 성진포 안과 울릉도 근처에는 갈차-옹어-홍어-복아-조개-목(미상: 도루목으로 보임)대구-방아전-복상어-상어-문어-짐(미상: 콩치로 보임)도마-돌고래-청아오징어가자마-해삼-홍합-바다표범-물개-올늘-물밤-명태-대구 등의 종류 중에 서식하지 않는 것이 없다.(8회, 384-385면)

3) 유철상, 「번역을 통한 ‘자미’와 ‘영향’의 재창조- 이해조의 『철세계』론, 『개화기소설연구』, 2000, 216면.

국 말기 애국계몽과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수용되었던 과학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는 1907년과 1908년 나란히 번역되어 대한제국 말기의 한·중·일 삼국의 정세를 반영한다. 일본은 문호를 개방하여 서구로 뻗어나가는 시기였으며, 중국은 쇠국을 펼쳐서 저물어가는 시기로 그리고 있다.⁴⁾ 「해저여행기담」에는 유독 다른 번안 작품보다 번안자의 ‘목소리’나 감정의 노출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해저여행기담」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번안하면서 돌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경우는 없다.⁵⁾ 1907년 번역된 최초 과학소설이라는 서지사항의 언급에 국한하거나, 원작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몇 가지 사항만 언급되었기 때문에, 아직 언급되지 않은 ‘번역자의 개입’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저여행기담」에서 원작에 없는 내용의 추가나 혹은 분량상에 차이를 드러내는 돌출된 부분은 최근의 완역본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두드러지는 경우임을 밝혀 둔다. 본 논문에서는 「해저여행기담」의 번역 비교가 주요 목적이 아니라, 발명·발견 소재가 어떻게 부국강병에 활용되었는지를

- 4) 철기는 일본이 세계에 유명한. 「자기 및 도기는 18·9세기경에 청나라, 곧 지나가 동서양에 유명하였더니, 요즈음에는 프랑스에 그 성가(聲價)를 뺏겼다. 비단도 15세기까지는 지나산이 우주에 명성을 울려 심지어 로마 부녀는 황금 한 근과 명주 한 근을 교환하여 극상(極上)의 사치품으로 착용하였다. 동로마황제 유스티니아노스가 기독교 2명을 지나에 보내 잠종(蠶種)을 유럽에 이식한 이래로 유럽 인사가 이 사업에 헌신하여 종사하여 지금은 비단 지나에 비해 그 염직(染織)의 정교함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옹 산물은 구대륙 인사는 차치하 고라도 신대륙·남·북아메리카 두 대륙을 가리킴 부녀자가 해마다 수만의 황금으로 독점적으로 사서 쓴다. 대개 지나는 완고하고 어리석음으로 옛 모습만 고수하다가 현재 상업, 공업, 농업 등에도 자승자박적으로 이익을 다 백인의 수중에 가게 하였으니, 슬프다.」(5회, 153면) 「해저여행기담」에서는 중국(지나)이 옛 모습만 고수하다가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그에 반해 일본의 여러 예술품이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다.
- 5) 박주현, 「1900년대 과학소설 속 영웅 형상과 구국의 논리-〈해저여행〉과 〈철세계〉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37집, 2022.8, 81-116면; 강정구, 「근대 계몽기의 과학소설에 나타난 기계 표상」,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8호, 2020.12, 111-134면.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최근 원작에 충실한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특별히 ‘돌출된’ 부분에 대해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최초로 국내에 유입된 과학소설이어서인지 많은 주석이 달린다. 대한제국 말기 유입된 초창기 과학소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에는 서구 문물의 발명, 발견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이에 반한 조선의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을 개탄하며 구습 타파를 외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과 조선의 현실을 계몽하고자 하는 일본 유학생들의 의지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 문물의 수용’이었다. 또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을 내세우고, 발명·발견을 장려함과 동시에 역사담이나 영웅의 일대기를 실어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재일본 유학생 집단은 식민지시기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여 예기치 않게 국내 민족주의 노선과 결을 같이하기도 한다. 『해저여행기담』의 번역자 재일본 유학생 박용희와 『철세계』의 번안자인 한학자 이해조가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구습타파’와 ‘애국계몽’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던 식민지 지식인 계층이었다. 『해저여행기담』에서 드러나는 일본 유학생 집단의 모순과 이중성은 이광수의 『개척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1907년과 1908년의 위태로운 시기에 수용되었던 과학소설은 1912년 『비행선』에 오면 금서 조치의 영향 때문인지 재미나 대중성 쪽으로 기울는 듯 보인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다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에드워드 벨러미의 소설이 번역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대 한국에서 과학소설이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도 즐기기도는 ‘문제의식’을 더 찾게 되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 온 첫 단추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본 논문은 1907년과 1908년 애국계몽의 일환으로 들어온 과학소설 번역역이 이후 국내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910년대 ‘과학’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에 대해서는 이광수와 김동인 소설을 필두로 하여 연구되었다.⁶⁾ 이광수와 김동인은 발명·발견 소재의 소설을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에 재일본 유학생 잡지에 글을 싣기도 하면서, 유학생 잡지의 정서나 유학생 집단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 소설을 창작한다. 이광수의 생애는 일본 유학생 집단이 조선으로 귀국 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들이 신봉했던 과학발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일본 유학생 집단이 국내 소설에 끼친 영향이나 혹은 그들이 주축이 되어 ‘과학’이 국내 소설에 신문물로 등장하게 된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⁷⁾ 특히 화학자 김성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개척자』는 김성재의 동기가 모두 일본에서 유학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귀국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소설이다. 『개척자』 연구는 이광수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나 김성재라는 모순적인 인물 연구에 주목해 왔다.⁸⁾ 본 논문에서는 이광수의 과학에 대한 인식보다 작품 안에 그려진 신문물로서의 발명·발견 소재, 풍경으로 인식된 화학실험 등, 식민지시기 조선인에게 ‘발명과학’이 이질적이고 모순된 풍경으로 들어오며 수용된 역사를 들어가 보고자 한다. 더불어 발명·발견 소재와 풍경을 이룩한 것은 일본 유학생 집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일본 유학생 잡지에 실린 「해저여행기담」에서부

6)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12, 143-171면; 권보드래, 「현미경과 엑스레이- 1910년대 인간학의 變轉」, 『한국현대문학연구』 18, 2005.12, 19-40면;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비교한국학』 27 권 2호, 61-89면; 이학영,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복잡성의 인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1, 2013.12, 465465-493면; 이학영,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담론 전유 양상- 이혜조, 이광수, 김동인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18.8, 213면.

7)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12, 161-165면 참조.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과학과 유학생의 의미〉 장 참조.

8) 김종욱,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2, 2003, 281-304면;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비교한국학』 27 권 2호, 61-89면.

터 유학생 경험을 가진 이광수 소설로 이어지기까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았다. 따라서 이광수 개인의 과학에 대한 인식보다 『개척자』에 드러난 김성재가 식민지 유학생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간주하고⁹⁾,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과학’이라는 용어 대신 ‘발명·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학적 인식이 아니라 발명·발견에 대한 기계나 기술, 혹은 풍경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발명·발견 소재를 차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광수의 『개척자』와 『사랑』은 ‘과학소설’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도 ‘과학’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발견’ 소재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행동이 왜 모순투성이인지, 애국계몽운동과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들어왔던 ‘과학’은 왜 민족을 부강하게 하는 길로 가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 혹은 공업(이공계), 과학소설을 가장 먼저 앞서서 들어왔던 일본 유학생 집단의 특성이 조선으로 귀국 후에 살았던 삶의 충돌, 그리고 실체가 없는 발명·발견과 성공하지 못하고 늘 실패를 되풀이하는 발명·발견 소설 속 그들의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국내에 처음 유입된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 그리고 이 작품들이 영향을 끼친 국내 창작 소설 이광수의 『개척자』와 『사랑』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9) 이광수는 자신의 소설 속 작중인물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이 원래 의도한 바여서 그렇게 읽혔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정』의 이형식이나 『개척자』의 성재, 성순, 민 같은 인물은 당시 제라고 하던 知識階級, 朝鮮靑年들의 模型으로 그린 것이요, 決코 作者의 理想하는 人物로 그린 것이 아니며, 『재생』의 신봉구, 김순영을 중심으로 한 一群의 人物도 當時의 靑年階級의 寫實의인 一斷面을 보이려는데 불과하였다. (『余의 作家의 態度』,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1, 461면)

2. 초창기 질 베른 과학소설의 유입과 조선의 현실

1) 「해저여행기담」의 번역 의도와 취지

「해저여행기담」은 연재 1회에 번역자 박용희의 번역 의도가 담긴 서문이 실린다.

나는 일찍이 **패사와 야설**을 애호하여 열독한 바 있다. 한적과 양서는 그 수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체로 **허황된 수식으로 잘못되거나 공허한 상상**으로 치달리거나 **음란하지 않으면 저속하기까지** 한 탓에 세속을 만회할 도리에 진실로 자료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근래 프랑스 문사 질 베른 씨가 지은 『해저여행기담』을 읽어보니 그 언론이 영롱하고 찬란하며 기이하고 교묘하여 속된 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목을 즐겁게 하여 또한 사람들이 얻는 바가 있게 한다. 한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진리로 유도하고 또 범상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철학으로 인도하니 헛된 것 같으면서 참되고 텅 비지 않으면서 완전하다. 또 그 **선악과 사정의 결과를 분명히 구별**하고, 사이에 **이학의 깊은 자취 및 박물의 실제 이야기**를 인용하되 낱낱이 분석하여 모두 정야로 귀결시키니, 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는 데도 만에 하나의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다른 사람의 반절밖에 안 되는 식견이지만 한 줌이나마 일조하리라 마음먹어 그 요점을 취하고 그 의미를 번역하여 여러분의 눈에 갖추어 드리나니 혹시라도 나무라지 않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다.(「해저여행기담」 1회, 완역본 2권, 213-214면)¹⁰⁾

박용희의 서문에서 드러나는 번역 의도는 선악과 사정의 결과를 분명

10) 본 논문의 『태극학보』 인용은 점필재연구소에서 2020년 간행한 『완역 태극학보』(보고사, 2020)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둔다. 이하 「해저여행기담」을 비롯한 『태극학보』 인용은 완역본 몇 권인지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히 구별하고 이학의 깊은 자취 및 박물의 실제 이야기를 분석(발명, 발견의 이야기)하고,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는 데에 효험(조선의 현실을 개탄하고 비분강개)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박용희의 「해저여행기담」에서의 번역 의도는 초창기 과학소설이 국내에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과학발명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번역된 「해저여행기담」에는 진기한 발명에 주석이 달리기도 하고, 원작에는 없는 조선의 현실이나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가 삽입되기도 한다.

「해저여행기담」에서 발명·발견에 대한 호기심은 바닷속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의 신비함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새로운 문물에 대한 가장 큰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잠수함 노틸러스호이다. 원작에서는 네모 선장에 대한 묘사도 세세하게 되어 있지만, 번역에서는 네모 선장보다는 노틸러스호의 동력인 전기와 잠수함의 운영체제와 구조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잠수함은 실체가 알려지기 전까지 전 세계에 고래 혹은 해양 짐승, 괴물로 명명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서구에서 고래로 비유되던 것이 동양에서 ‘백사’에 비유된다. 잠수함의 신기함은 그 안에 갖추어진 여러 진기한 보물과 음식들로 이어지는데, 그 보물에 각국의 생산지를 붙여 놓고 국가의 위상과 견주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기한 발명이나 전시품은 각국을 대표하는 것이다. 전시장에 놓인 ‘국적’과도 같다. 이때 국적은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던 원작과 달리하여, 동양(특히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표기하여 놓고 지나(중국)는 일본에 비해 쇠락해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며 중국과 일본을 비교한다. 발명품이 각국의 위상과 국력으로 대표되는 것은, 당시의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노틸러스호에서 가장 강조되는 발명은 동력인 ‘전기’이다. (주석까지 달려 있다)¹¹⁾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이 ‘전기’였다.

11) 당시 전기발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 (백혜진,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12, 148-154면. <‘비실재물인’ 과학에 대한 배

온도계, 시진기, 현미경, 망원경, 무선전화(무선전신) 등의 발명품들이 원작에 없는 데도 들어간 것을 보면, 이 발명품들이 당대에 유명했던 것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의: 이 『해저여행』에서 그저 광선 또는 반구 모양의 등이라 부르는 것은 곧 전기 및 전등을 일컫는 것이다. 대개 12회에서 네모가 기이한 계책으로 갑자기 야만의 적을 쓰러뜨린 비밀을 먼저 누설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전기 작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려면 책의 분량을 뛰어넘고 글이 중첩되는 까닭에 일일이 기재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전기를 작동시키는 데 마찰발전작용(摩擦發電作用)과 화학작용이 있다. 전지는 곧 기계와 기계를 마찰하여 전기를 일어나게 함이니 곧 수력전기, 화륜전기 등이요, 후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전지 안에 발전약품(發電藥品) 가령 염화암모늄과 물을 함께 담아 전기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같다. 을 섞고, +극 곧 양극(積極)이라고도 한다.의 배치로 전류를 발전기라고 부르는 기계 안에 유통하게 하면 발전기의 크기에 따라 그 역류하는 전력도 따라서 같은 비율로 배가하니 이를 응용하여 더러는 기계와 전자등도 마음대로 운전하며 더러는 전등, 전화, 전신 등도 마음대로 사용한다.(3회, 완역본 2권, 374면)

제혁(製革)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모로코가 유명**한데 지금 성경에 쓰이는 가죽 책가위는 대개 이 나라에서 난 것이다./ **칼과 창 같은 무기의 제강에는 터키와 일본이 세계에서 유명하다**(4회, 완역본 2권, 434

혹) 장의 '비실재물인 전기가 이 당시 과학 담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과학의 청신호로 대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김석희의 번역본(완역에 최대한 가까움)(컬 베른, 김석희 역, 『해저2만리 I』 컬 베른 컬렉션 2, 열림원, 2002)에도 전기에 관한 주석이라든가 발명에 관한 부분은 없다. 김종방은 『해저여행기담』을 당시 일본판본과 비교해도 '전기' 주석에 관한 부분은 일본판본 부연설명에는 없다고 하며, 이 부분은 작가(역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김종방, 「한국 과학소설의 성립과정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2009.12, 40-41면 참조)

면)

「해저여행기담」은 1회부터 5회까지는 박용희가 번역하다가 6회부터 자락당으로 번역자가 바뀐다. 1회부터 5회까지는 원작에 없는 나라별 생산품이나 영웅들이 등장하고,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강한 어조로 들어가 있다. 6회 발명품 나열, 7회 개화인의 이중성, 8회 원작의 일본해를 통해 울릉도로 묘사하여 어종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6회에서 원작과는 다르게 신기한 발명기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모두 당시 글에서 새로운 서양 발명품으로 언급되는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전기의 발명’에 대해 각주까지 달아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기로 가는 시계가 진기한 발명품으로 거론된다. 마치 서구에서 열리는 박람회장처럼 당시 신문지상에서 소식을 접했거나 막 들어와 눈에 보이는 신기한 서구 문물을 전시해 놓듯이 나열하고 있다.

이때 네모가 또 아로낙스 씨를 편실로 인도하는데 명칭도 모르고 쓰임새도 모르는 기계가 즐비한데 곧 항해에 필요한 기구인 **원동나침반**, **온도계**, **청우계**, **힘은기**, **힘풍기**, **방향지침기**, **육원의-태양의 고도를 따라 위도를 측량하는 기계**, **시진기(時辰器)-경도 측량기**, **천체를 관찰하는 대망원경**, **박테리아를 찾는 현미경**, **태양 반점과 지진 및 화산 등의 폭발을 대비하는 예보기(豫報器)**, **반사경(反射鏡)**, **해평측량경(海平測量鏡)** 등이었다. “이들 기계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으나 본함(本艦)을 한층 더 유용하게 하며 한층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은 **전기(天氣)의 밀도를 측량하면 해수의 압력과 해저의 깊이를 탐지하는**, 형용하기 어려운 하나의 동력이 있어서이니, 이 동력은 곧 본함의 생명이다. 이 동력을 말미암아 본함을 운전도 하며 식물을 삶고 굽기도 하며 빛도 얻으며 활동도 가능하니 다름 아니라 곧 **전기이다**.”(완역본 3권, 6회, 자락당 역, 223-224면)

“…… 그러니 귀하는 이 **시진기-시계**-를 보라. 이 또한 전기의 작용을 이용한 것이라 비록 한평생 태엽을 틀어주지 않더라도 한 푼도 외계의

정확한 시종과 차이나는 바가 없으며, 함내의 해와 달의 비추임과 주야의 구별이 없으므로 내가 이탈리아 시계와 같이 24시간을 나눌 필요가 없으나 편리상으로 그 시계 경위도 분칙(分則)을 모방하여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6회, 완역본 3권, 224면)

“귀하의 은근하고 정성스러운 정답을 말미암아 진세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발명과 발견의 영광을 세계** 받았으니 감사하기 이룰 바 없으며 또한번 듣고자 하는 것은 본함의 속력은 몇 해리인가?” 네모가 “저 구형의 유리그릇이 곧 그 속도를 지시하는 지침이니 본함의 속력은 한 시간에 15리 내지 20리-1리는 우리나라 10리이다의 거리를 달려가기는 손바닥 뒤집는 듯하니, 이는 다 현재 **외계에서 발명되지 않은 바 전기의 작용이다.**”라 하고 말을 마쳤다.(6회, 완역본 3권, 224-225면)

“나는 줄-선(線)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곱절로 나은 전선-어쩌면 네모가 **무선전신**을 가리킨 것인가?-으로 노틸러스를 불러 맞이하러 오게 한다.”(6회, 완역본 3권, 226면)

「해저여행기담」은 잠수함 노틸러스호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원작에 없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고 한산도 이순신, 카르타고의 한니발 등의 영웅을 소환하는 것과 함께 등장인물에도 ‘영웅 호걸’의 이미지를 씌워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저여행기담」은 역자가 삽입한 영웅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다.¹²⁾

12) “가령 **미국 독립 시에 워싱턴**의 부하로 무수한 무명의 **워싱턴**이 없었다면 미국이 어찌 그 목적을 이루었겠으며, **독일 제국 성립 시에 비스마르크** 부하로 무수한 무명의 **비스마르크**가 없었다면 독일이 어찌 오늘날의 융성을 이루었으리요./ 우리 대한 동포여! 옛날 북아프리카 해안에 웅거하며 당시 천하의 막강하고 막대한 로마제국과 자웅을 서로 겨루던 **카르타고국**이 왜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망국의 참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10만 철기를 이끌고 나는 새도 넘지 못하던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군에 백전백승해 자국의 위명을 천하에 표양한 개세영웅 **한니발**을 용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326면) 우양 최석하, 「한국의 부흥은 영웅의 승배에 있다」, 『태극학보』 제10호, 완역본 2권, 보고서, 2020, 326-328면. 이 글에서 언급된 워싱턴, 비스마르크는 박용희가 『태극학보』에 영웅담을 연재한 이들과,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해저여행기담」에서 이순신과 함께 박용희

한산도 이순신,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한산도의 애국시(2회, 292면) 이순신의 시나 이순신이 영웅호걸의 대명사로 종종 이름이 보이는 것과 신채호의 「이순신전」이 1908년 연재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무관하지 않다.¹³⁾ 더군다나 역자 박용희는 『태극학보』에서 역사담을 여러 편 번역해서 게재한다.¹⁴⁾ 1회에서 5회까지의 번역자 박용희는 『태극학보』에 워싱턴¹⁵⁾, 비스마르크, 시저, 크롬웰의 영웅담을 싣는다. 「해저여행기담」에서 강조되는 것도 영웅이다. 「해저여행기담」에서 원작에 없는데 삽입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웅의 소환이다. 박주현은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에 나타난 영웅의 형상을 분석했다. 「해저여행기담」에서 박주현이 영웅 형상으로 삼은 인물은 노틸러스호의 네모 선장이다. 그러나 「해저여행기담」에서 네모 선장보다 영웅으로 형상화한 인물은 링컨 호의 아로낙스 선장과 그의 일행 콩세유와 네드이다. 실제로 영웅호걸이라는 단어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노틸러스호를 탄 이후에도 이들 셋의 모험으로 그려지고 있다. 네모 선장보다는 노틸러스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와 박물관(서재), 진기한 음식 등에 관한 묘사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1912년 김교제가 번역한 『비행선』에서는 잠행특의 과학기술이 뛰어났음에도 그들을 영웅 형상으로 그리지 않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투한

가 원작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며 언급된 영웅이다. 원작(켈 베른 전집의 김석희 번역본을 참고하였음)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희 개인이 선택한 영웅상으로 볼 수 있다.

- 13) 이광수 역시 『이순신』(1931)을 장편으로 내놓는다. 이들이 한결같이 애국계몽을 위한 영웅으로 이순신을 소환하면서도 친일의 길을 간 것은 아이러니하다.
- 14) 손성준, 「『태극학보』의 〈역사담〉 번역과 그 정치적 지향」,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287-322면.
- 15) 이해조 역시 「워싱턴 전기」를 번역한다. 워싱턴과 같이 독립운동을 이끈 이들이 영웅으로 소환되는 시기였다. 『태극학보』 제10호에는 워싱턴의 좌우명이 실리기도 한다. 일상생활 좌우명이라 별다른 게 없는데 8호에 이후 후속으로 여러 면에 걸쳐 실고 있다. 이훈명, 「워싱턴의 일상생활 좌우명(8호 속)」, 『완역 태극학보』 2, 330-335면. 영웅의 이름이 계속 겹치는 것은 1907년과 1908년 '영웅상'은 시대를 대표하듯이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술을 연마하는 야만인으로 묘사하고 있었다.¹⁶⁾ 네모 선장에 관한 묘사도 「해저여행기담」에서 많이 생략되었거나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대신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시 〈한산도야음〉을 읊조리거나 조선의 영웅이나 『태극학보』의 역사담에서 실린 영웅을 나열해서 네모 선장과는 다른 영웅상을 형상화한다.

영웅을 숭배하는 이유나 영웅을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 “튼튼하고 굳세고 굳센 중심점과 위대한 원동력을 만들어 전국 국민의 정신을 통일 단합해 일동일정도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관을 조성해야 그 최후 목적을 거의 이룰 수 있을 것이니”(「한국의 부흥은 영웅의 숭배에 있다」, 『태극학보』 제10호, 완역본 2권, 328면)에서 드러나듯, 전 국민의 정신을 통일 단합하는 것이다. 두세 지사의 허끝과 붓끝(연설과 글)으로 전국 인민을 활동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 ‘영웅숭배’로 국민정신을 통일 단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파퓌아뉴기니섬에 착륙하여 모험을 하는 이들도 아로낙스, 콩세유, 네드 일행 세 명이다. 이들 세 명에 대해서도 처음 바다 괴물을 조사하러 항해에 오를 때부터 **이 세 호걸이 배에 탄 이상 비록 그 괴물이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들어가지만 염려할 것이 없다.**”(1회, 완역본 2권, 220면)라고 영웅호걸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파퓌아뉴기니섬에서 착륙하는 장면에서도 “네드가 키를 잡고 아로낙스와 콩세유는 노를 저어서 나서니 보트는 마치 질풍처럼 빠른데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파퓌아뉴기니섬의 동쪽 끝을 향하여 나아갔다.”(10회, 완역본 4권, 299면)라고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단합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은 링컨 호가 적도 아래 경도 110도를 거쳐 태평양 중앙을 두루 탐색한 뒤 지나, 일본 및 조선 해변을 일일이 찾아 나설 때 아로낙스 씨, 콩세유, 네드 랜드 씨는 “**한·일·청의 역사를 대략 논설하였다.**”(2회, 완역본 2권) ‘청나라’가 과거와 달리 기울어가는 정세에 직면

16)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68, 2020.9, 152-154면.

해 있고, 조선도 ‘지나(중국)풍’에 동화되어 악습에 사로잡히고 ‘지나’에 예속되어 독립의 사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한다. 「해저여행기담」에서는 중국을 구습, 옛것을 고수하는 완고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으며, 조선의 옛 풍습도 중국에 예속되어 악습과 폐습이 난무한다고 한다. 일본 유학생들에게 일본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문명국으로, 중국은 과거에 사로잡힌 고립된 나라로 인식되었다.

“저 청나라는 예부터 위인걸사(偉人傑士)가 적지 아니하나 수천 년간 전제정치 아래에 사기(士氣)가 침체하고 민심(民心)이 이산하며 학정(虐政)과 간리(奸吏)에 원망하는 마음이 뱃속에 가득 차 개인주의에 대체로 기울어 가는 까닭에 자연히 나라는 나라대로 국민은 국민대로가 되며 임금은 임금대로 나는 나대로가 되어 세계의 1/4 이상이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성하지맹(城下之盟)과 발총지욕(發塚之辱)을 면하지 못하니 가련하다.

그리고 이 조선도 수천 년 동안 지나풍에 동화되어 폐풍(弊風)과 악습을 형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시종일관 지나에 예속된 나라로 독립의 사상을 완전히 잃어버려 그 나라의 국사(國土) 을지문덕, 양만춘, 김유신, 이순신, 박제상 등의 정신은 조금도 없다. 이른바 상등사회(上等社會)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격으로 백성을 약탈하고 학대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정이며, 하는 일이라고는 매춘과 화투로 한밤에 자서 한 낮에 일어나는 것과 공갈 호령으로 토색질과 뇌물 수수하는 것뿐이며, 또 그 하등사회(下等社會)는 명을 받들어 분주히 수행하기에도 힘이 못 미쳐 다시는 겨를이 없다.(2회, 완역본 2권, 290면)

2) 일본 유학생 집단- 개화한 사람들의 이중성

「해저여행기담」에서 한·중·일 삼국의 정세를 논하며,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의도는 조선의 옛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여 ‘조

선을 계몽'하지는 것이다. 조선의 옛것을 고집하는 선비와 개화한 선비들 사이의 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전통과 신문물의 대비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그러나 「해저여행기담」 7 회에는 원작과 관련 없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개화한 선비들의 나라의 형세를 개탄하며 부르짖으면서 아침에는 이현을 엿보고 저녁에는 경동을 기웃거리며 오나라 왕에게 아첨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문물이나 서구 사상을 부르짖으며 조선 민족을 위하는 듯이 나라를 위하는 듯이 개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외부 세력에 아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일본 유학생 잡지에 자금을 댄 이들 중에서 혹은 일본 유학생 잡지에 글을 실었거나 일본 유학을 한 이들 중에서 앞장 서서 친일을 한 자들이 있었던 것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수순이었다. 『태극학보』 13호 의연금 명단에 **이지용, 민영기** 등(각 30환씩, 완역본 3권, 161면) 대표적인 친일파가 들어 있다는 것도 일본 유학생 집단의 이중적 모순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태극학보』에는 당시 조선인 두 명을 동물원 우리에 전시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면서도 서구나 외세에 아첨하는 무리도 있다는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부각하는 것을 보면, 서구 문물을 들여오고 구습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을 경멸하고 외세에 빌붙는 세력이 '문명개화'라는 구호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기이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용희도 「해저여행기담」에서 원작에 없는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를 적지 않게 삽입하며 민족을 통합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려는 정치적 발화를 서슴지 않았으나, 귀국 후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일을 시작하는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인다.¹⁷⁾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유입된 과학소설과 그것을 목적으로 창간된

17) 손성준, 「『태극학보』의 〈역사담〉 번역과 그 정치적 지향」,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316면 참조.

일본 유학생 잡지는 그 목적을 실현했을까. 『태극학보』 자금을 대던 명단에 이지용, 민영기 등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들 모두 이 잡지의 애국계몽 운동에 앞장섰던 것임을 상기해 볼 때, 박용희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이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에 조선총독부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유학생의 애국계몽운동이 이후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일 수 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비린내로 이 외람되고 당돌한 이야기를 내뱉은 노성(老成)한 여러 군자의 꾸짖음을 면치 못하겠으나 본시 내국(內國)의 옛 습속을 따르는 유지자는 제쳐두고, 이른바 개화(開化)의 여러 선비들아! 내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으니, 공(公)들이 여럿이 모인 마당과 성대한 연회 자리에 맞닥뜨려서는 소매를 떨치고 큰소리를 내며 ‘나라의 형세가 이러이러하고 세상 풍조가 이러이러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더러는 책상을 치며 크게 부르짖기도 하며 더러는 얼굴을 가리고 울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그 내용을 보고 그 이면을 찾아보면 아침에는 이현(泥峴)을 옛보고 저녁에는 경동(京洞)을 기웃거리며 대감이 똥을 누는 곁에 무리지어 서 있다가 오(吳)나라 왕의 똥이 달다는 이야기를 한다. (7회, 완역본 3권, 299-300면)

내 얇은 식견으로는 이는 꼭 두셋의 개화꾼이 앵무새처럼 일본어로 떠들며 천리마에 붙어 위세를 떠는 것이고 원숭이가 내는 서양 흉내로 자만하여 남을 무시함이니,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탁하게 하여 연못 전체가 흐려지고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름에 구족(九族)에게 죄가 미치는 격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들은 바가 오직 이것이며 말하는 바가 이것뿐이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7회, 완역본 3권, 300면)

3. 『철세계』의 이중성- 한학자 이해조의 과학소설 번역의 민족 계몽 추구의 귀결

『태극학보』 의연금 명단에는 이해조의 이름도 있다. 그러나 이해조는 일본 유학을 한 적이 없는 한학자이다. 『철세계』는 일본의 모리타 시겐이 아닌 중국 포천소 판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한문 혼용체가 아니라 한글로 번역해서 널리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철세계』는 일제에 의해 금서 목록에 오른다. 대한제국 말기에서 식민지시기에 한학(한문)은 스러져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⁸⁾ 청년들은 구세대의 한학 대신 일본어나 서구의 영어를 배우고자 했다. 이상춘의 「기로」의 문치명 집안도 신학교의 학문보다 사서삼경과 같은 유학이나 한학을 고집하며 문치명이 경성에 유학하러 가서 신학문을 배우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조의 일본어 판본이 아닌 포천소 판본의 번역은 「해저여행기담」의 일본 유학생 집단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해조가 이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기를 바란 데는 장수춘의 위생 관리를 앞세워서 조선의 구습을 타파하고 민족을 계몽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당시 조선은 유학하고 돌아온 아들들 신지식인과 조선에 죽 있었던 부모 세대와의 충돌이 심했다. 조선 청년은 일제와 싸운 게 아니라 구세대와 싸워서 자신들의 자유(연애)를 지키고자 했다. 이때 신지식인들이 들고나온 것이 유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과학’ 기술로 인한 신문명이다.¹⁹⁾ ‘과학’은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투쟁 도구이면서, 지식인들이 애국계몽과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위하는 구호이면서, 자신들의

18) 강전, 「국문의 편리와 한문의 폐해의 실(전호 숙)」, 『태극학보』 7호, 115-116면. 그러나 『태극학보』에는 국문보다 한문이 많아 일반 대중이 읽기가 매우 어렵다. 「해저여행기담」도 『철세계』보다 대중이 읽거나 접근하기 어렵다. 국문이 편리하다고 하면서 한문을 고집한 일본 유학생 집단과 한학을 고수하면서 국문으로 번역한 이해조는 그 자체로 아이러니하다.

19) 황중연, 「신 없는 자연- 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집, 2012.9, 143-182면.

삶을 완전히 개혁시킬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유학을 하지 않고 조선에 있었던 이해조는 한학을 공부했지만, 신학문에 관심을 두어 고향에 청성제일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1907년 대한협회와 1908년 기호흥학회 등에 가담하여 신학문 소개와 민중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한때 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에도 작품을 발표했다. 한학과 신학문, 유학과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는 신교육, 신사상, 신학문을 받아들여려는 신세대 젊은이와 구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이해조의 민족계몽운동도 유학파의 애국계몽운동과 합쳐지면서 조선의 구습을 타파하고 신교육으로 조선을 계몽하자는 취지로 귀결되었다.

쥘 베른의 작품 중 프랑스가 독일에 알자스·로렌 지방을 뺏긴 감정이 투영되어 비유된 『인도 왕비의 유산』을 가져온 것은 삼국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일제의 식민지로 국권이 상실되기 직전이 조선에서는 장수촌에 감정이입되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철세계』에서는 연철촌에 잠입한 장수촌의 스파이인 마극·약한(스파이명)의 태생은 아이사사(알자스)로 표기하면서도 열두 살에 조실부모하고 ‘범덕전쟁’에 적국병이 파리를 에워쌀 때 파리부중에 있다가 의용대를 조직하여 적병과 접전 중 창을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좌선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²⁰⁾ 『철세계』에서 마극은 민족을 구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구현된다. 고아에서 좌선에 의해 길러져서 적지인 연철촌에 위협을 무릅쓰고 잠입하여 장수촌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 와서 장수촌에 연철촌의 기술을 도입하고 결국 승리를 이끄는 마극은, 1908년 당시 조선이

20) 마극의 이런 모습은 당대 동학에서 을사의병으로 이어지는 조선 민족의 한 모습을 상기시킨다. 독자에게 마극이 조선의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해저여행기담』에서부터 소환되던 ‘영웅’이 당대 조선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순신과 같은 과거 역사적 영웅상에서 위태로운 대한제국 말기 나라를 구해줄 민족 ‘영웅상’이 필요했던 것이다.(김종방, 『한국 과학소설 성립과정 연구』, 세종대 석사, 2009.12, 53-54면 참조); 박주현, 『1900년대 과학소설 속 영웅 형상과 구국의 논리』, 『고전과 해석』 37집, 2002.8, 101-105면 참조)

필요로 하는 ‘영웅상’이었다. 「해저여행기담」에서 역사적인 영웅을 소환하며 애국계몽을 부르짖었다면, 『철세계』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당대의 영웅을 희망하며 애국계몽을 외쳤다고 볼 수 있다. 『철세계』의 금서 조치는 일제가 이 작품에서 대한제국 말기 조선인이 바라던 영웅상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세계』 영웅인 마극은 연철춘의 부강한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익힌 장수춘에서는 ‘신기술’을 ‘유학한’ 과학기술자였다. 연철춘의 인비가 화학자였다면, 장수춘의 마극은 그들의 화학기술과 제조기술을 도입해 온 신기술 개척자였다. 신기술을 도입한 마극과 이것을 장수춘에 활용하려는 좌선은 장수춘의 낡은 것을 타파하고 전염병이 없고 부강한 이상국가를 건설한다.

일본에서 쥘 베른의 적극적인 수용과는 달리, 조선에서 『철세계』를 금서로 조치했던 것은 두 나라에서 각기 다르게 읽혔다는 방증이다. 조선은 연철춘의 발명된 제조기술이 두려우면서도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제조기술을 연철춘만큼 더 발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리고 늘 발달된 나라나 이상적인 국가에는 ‘위생’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염병이 적다는 인식이 배어 있었다. 『태극학보』 20호에는 가래의 불결함에서 전염병인 흑사병까지 언급하고 있어서, 위생이 불량할 때의 전염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다.²¹⁾ 세계문명사 강단에서도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여 흑인을 식인풍습의 야만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양을 야만인이라 계몽해야 하고, 서구를 쫓아서 위생 관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이 전제되어 있다. 『철세계』는 프랑스인이자 서구인인 쥘 베른이 동양에 대해 가진 인종차별, 프랑스인 좌선이 건설한 장수춘과 독일인 인비가 건설한 연철춘 사이의 명확한 선악 구도가 들어가 있어서 각국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다. 서구를 따라가고픈 일본은 연철춘에 감정이입을, 중국은 장수춘이라는 이상춘을, 대한제국 말기

21) 김영재, 「타담(唾痰)의 위생」, 『태극학보』 20호, 완역본 4권, 보고서, 2020, 271-272면.

주권을 빼앗길 처지에 있었던 조선은 장수춘에 감정이입하면서도 강력한 제조기술의 연철춘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중적인 위치에 있었다. 장수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화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당시 조선의 구습타파와 문명개화 사상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명·발견에 담긴 서구 문물의 도입이나 서구 사상의 추구는 문명을 개화하고 ‘발전’하도록 이끄는 지식인의 연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일본’을 경유한 사상이라는 함정이 있었다. 그리고 신문물과 신사상과 자유연애 사상이 유입되면서 식민지 지식인들이 일본에서 유학한 여성과 자유롭게 연애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이 처한 상황이나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광수의 『무정』의 이형식이나 『개척자』의 김성재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식민지 지식인의 발명·발견을 위한 실험이 항상 실패로 끝나고 무엇을 발명하고자 하는지 구체적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주창했던 ‘애국계몽’이 조선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서구 신문물의 유입으로부터 나온 ‘외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 또 이런 이치를 경험하였으니, 연전에의 대리국에 유람할 때, 파리 지방에 살생동을 보았고, 작년에 내가 용을 쓰고 탄광 밑에 들어가 극아를 찾았거니와 극아 죽기도 이 독기로 그런 것이니, 이 두어 가지 경험이 여차한지라, 이럼으로 몇 해를 궁리하여, 이 **대포를 신발명**하였노라. 네 아모리 재력이 총민한들, **탄산을 가져 삼시간에 일도부를 와서바다가 되**게 할 줄은 몰랐을걸. 그러하나 오히려 내 마음에 미흡한 것이 이 탄환 빠질 적에 소리가 몹시 나는 게 재미없겠노라.²²⁾(279-280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이 산식을 보시오. 이 산식이 바를진대 인비와 세음이 틀릴 것이니, **저 대포의 힘이** 맹령하여 필연 본춘에 떨어

22) 이해조, 「철세계」, 『신소설번안(역) 소설 3』,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 아세아문화사, 1978. 『신소설번안(역) 소설 3』에 수록된 「철세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1908년 회동서관에서 출간된 『철세계』와 같은 판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소설번안(역) 소설 3』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하 「철세계」 인용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지지 않고 지나 넘을 것이니 우리도 겸하여 개특산에 올라가 봄시다. 마극의 예산이 올흔가, 인비의 예산이 그릇된가, 지금이 십오분이 되면, 알겠소.(303면)

그러나 장수촌에 백주랑설과 흑야허성이 비일비재하여, 혹은 인비가 셋법을 내어, 물밑에 **잠행군함**을 지어, 장수촌의 인민이 눈으로 보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짓친다 하며, 혹은 **공중에 비행기**를 지어 불시에 버락치듯 한다 하며, 또 혹은 적병이 벌써 장수촌의 **중앙철도지선**을 끊었다 하고, 혹은 아동부녀가 더욱 황겁하되, 실상은 귀척없고 장수촌의 **제조구역**은 날마다 번성하더라.(306면)

대한제국 말기 조선 민족은 장수촌에 감정이입하면서도, 연철촌의 신발명 대표를 동경한다. 강철제조업자인 인비의 대표뿐만 아니라 잠행군함, 중앙철도지선 등을 부러워한 장수촌도 결국 '부국강방'을 위해 연철촌의 '강철제조구역'을 받아들여 날로 번성하게 한다.²³⁾ 전염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생학회의 회원인 좌선은 이상적인 마을 장수촌을 건설한다. 조선 민중의 계몽과 개조를 외치는 당대 지식인 세력의 민족개조론과 애국계몽운동이 맞물려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장수촌의 이중성은, 국권상실의 위기에 처한 조선인도 가졌을 수밖에 없다. 장수촌의 이중적 논리는 조선인에게도 감정이입이 되었지만, 일제에게도 '위생'을 '애국계몽' 뒤에 숨기는 허울 좋은 통치전략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장수촌의 호구가 이상히 늘어 초년에는 육백호가 삼년동안에 구천호가 되고 지방은 십여만 인구가 되며 촌중진도와 가옥의 세납은 극히 험하여 촌주가 차지하고 촌중의 범백민사와 형사는 위헌회로 걸쳐놓고 **촌**

23)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 『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2020.9, 145-149면.

민 위생총회는 좌선이 주장하되 독단하지 않고 각국의 학사와 루차 왕복하여 심분심신하더라. 신세계와 구세계와 동서양에 평균 죽는 사람이 매년에 백의 셋쯤 되니 지극히 적은 수효라. 장수촌은 실시한 이후로 다섯 해에 평균하면 매년에 불과 백의 일분 오리쯤 되니 이는 오히려 초년에 백사가 미비하고 질병이 유행함으로 이 수효가 되었고, 만일 작년의 조사함을 보면 백의 일분이리오호가 되니 이 일분이리오호는 **조상의 유전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그러하고 불시여역으로 죽은 자는 도모지 없으니 이럼으로 장수촌 사람들이 자랑하되 삼십년 후에는 장수촌에서 병드러 죽을 사람은 없고, 백세 나에 백세를 살다가 절로 늙어 꽃나무 말려 죽듯한다 하더라.(295-296면)

벌레와 곰팡이의 ‘전염하는 독기가 끊어지게 하고 먼지 티끌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뿜게 한다’는 등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쓴다. 위생학회는 전염병과의 사투로 여겨질 만큼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염려한다. 『태극학보』에서 조선의 위생을 논할 때 유럽의 ‘흑사병’을 언급하고 있는데²⁴⁾,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 전염병 퇴치를 위해 ‘위생’ 관념이 철저하게 대두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도 전염병 관련 예방법에 대해 기술해 놓거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된다. 『태극학보』 제19호에서는 「천연두 예방법」이 실린다.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거나 위생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부 내지 관부에 조속히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생’은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허울 좋은 구실이 되기도 했다. 유럽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인종차별의 미개한 민족을 계몽하고 개조해야 한다는 통치이념으로 들어왔다. 장수촌의 위생학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의 조선 민족 통치전략과 비슷한 면모를 보여준다. 쥘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이 이해조가 1908년이라는 이른

24) 흑사병으로 엄청난 인류의 죽음을 경험한 유럽은 위생과 죽음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위생관리는 곧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술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영재, 「타담(唾痰)의 위생」, 『태극학보』 20호, 완역본 4권, 보고서, 2020, 271-272면)

시기에 『철세계』로 번역한 이래, 김석희가 쥘 베른 진집으로 번역할 때까지 국내에서 번역된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그 안에 담긴 서구의 동양에 대한 시선, 장수춘(원작에서는 프랑스빌)의 이중적인 시선이 받아들이기 불편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족개조를 부르짖던 식민지 지식인이 ‘친일’의 길을 걸어갔던 것도 조선 민족이 미개하고 게을러서 계몽해야 한다는 의식이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과 집단이 아니었던 이해조의 번역에서의 장수춘이 지닌 ‘이중성’은, 계급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 지식인이 봉착한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수춘의 규칙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비슷하게 흡사한 구절들을 취하고 있다.²⁵⁾

이 열 가지는 집 제도가 이러하고 촌에 사는 사람은 아무 사람이든지 **한 가지 직업을 잡게 하니** 좌선의 말이 사람이 건강코저 하려면 **매일 신체의 운동과 휴식**이 균일한 것이 제일이라 하여, 네 살 된 아해부터 유치원에 들어가 체조를 익히고 또 거처범백이 조출하지 않으면 병이 자조난다하여 아동들이라도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옷깃이나 소매에 땀이나 때가 묻었으면 곧 앞에 불러세우고 욕을 뵈야 다시 사람을 못볼듯이 하며, 지어 **음식은 위생**이 제일 긴요하다 하여 음식 장사가 혹 상한 물건을 성한 물건에 혼잡하여 팔면 곧 독약으로, 살인물을 쓰고, 또 좌선이 항상 말하되, 요사이 병원은, 오백가지천가지되는 병이니, 한 대들 섞여있어 이 사람의 병이 저 사람에게 옮고 저 사람의 병이 이 사람에게 전하여 서로 방해가 되니 대단히 불가하다 하여 장수춘의 병원은 한 간에 한 사람이 있게 하고, 벽으로 사이를 막아, 서로 기운을 통치 않게하고, 병원은 벽돌을 아니쓰고, 목재로 지어 매년 일차로 불을 놓아 소멸하더라(『철세계』, 294-295면)

25) 김동식, 「민족개조와 감정의 진화-1920년대 이광수 문학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학연구』 제29집, 2013.2, 29-54면; 김택호, 「개화기의 국가주의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의 관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12, 269-287면.

위의 장수촌에서 장려하는 촌사람들이 한 가지씩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아이들의 위생관리는 이광수의 『흙』에서 허송이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던 내용이다. 「민족개조론」에서 改造主義의 內容을 살펴보면, 대략 “1) 거죽말과 속이는 實行이 없게,…… 6) 普通常識을 가지고 一種 以上の 專門學術이나 技藝를 배워 반듯이 一種 以上の 職業을 가지게, …… 8) 家屋, 衣食, 道路 等の 清潔 等 衛生의 法則에 合致하는 生活과 一定한 運動으로 健康한 體格의 所有가 되게,”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가지 이상의 직업, 운동, 위생관리 등이 모두 장수촌에서 내세우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²⁶⁾ ‘애국계몽’을 부르짖던 일본 유학생들은 구습을 타파하고 조선 민족을 계몽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신문물은 문명개화, 조선의 옛것은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신문물을 받아들인 일본 유학생 집단의 지식인 계층이 기울어 가는 조선보다 과학으로 발전된 앞날을 보장해 주는 서구의 다른 이름인 일본에 현혹된 것은, 일본 유학에서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4. 이광수의 실체가 없는 발명과학과 죽음의 대리로서의 발명과학- 『개척자』와 『사랑』

이광수는 일본 유학생 잡지 『대한흥학월보』에 「무정」과 「문학의 가치」를 신는다. 식민지시기 유학 경험이 있는 지식인의 표상이라고 할 만큼

26) 장수촌의 위생 관리와 생활 습성 규칙과 민족개조론, 그리고 『태극학보』에 실린 「습관개량론」(『태극학보』10호, 완역 2권(321-325면)에서 ‘게으른 풍습을 말끔히 쓸어버려야 한다’와도 상통한다. 안지영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서 근면한 ‘민족’이라는 것에 인간의 욕망을 규격화하고 규율화된 윤리도덕으로 통치하려는 주체화 전략이 담겨 있다고 언급한다.(안지영, 「근면한 ‘민족’의 탄생-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12, 41-70면 참조)

근대 문물과 새로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작품 곳곳에서 근대 문물이 들어온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어 묘사하고 있다. 『무정』에서 기차 소리와 전차, 『개척자』에서 시험관 약병을 끓이는 화학자 김성재의 모습은 서구 신문물의 표상이었다. 애국계몽을 내세웠던 유학생 집단은 조선으로 귀국한 후 무엇을 했을까. 이들이 애국계몽과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과학발명에 대한 기대는 귀국 후 어떻게 형상화되었으며 부풀어 올랐을까. 이광수의 『개척자』는 바로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엘리트 집단이 귀국 후 어떤 다양한 군상으로 살아갔는지를 포착한 소설이다. 그중의 한 군상으로 화학자 김성재를 주 인물로 포착한 것은, 당대 조선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인물이기도 하면서 서구 발명·발견을 무조건 좇으려고 했던 양상과 이들이 중생을 구제하거나 과학으로 민족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대중과 유학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차이를 두려고 하는 권위와 엘리트 의식으로 뭉쳐 있었던 양상을 드러낸다. 과학발명은 이들에게 민족 구원이나 인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몰락한 집안을 단번에 일으켜 세울 일확천금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동기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1) 일본 유학생의 귀국 후의 다양한 군상 『개척자』

이광수는 「새 아이」와 「어린 벗에게」에서부터 X광선과 현미경에 대해 묘사한다. 새로운 문물과 과학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이후 『개척자』에서 아예 실험하는 지식인, 화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된다. 1917년 같은 해 『무정』에서 이형식은 ‘과학’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수재민들에게 연설한다. ‘과학’은 새로운 지식 육구와 민족계몽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개척자』의 첫 시작 부분은 1917년 당시 식민지 엘리트 인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발명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개척자』의 시작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물이 ‘팔각종’이라는 것이다. ‘팔각종’은 화학자 김성재에게 땀 수 없는 동고동락의 관계이며 유일한 벗이자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 팔각종은 일본에서 귀국할 때 사 온 서구 냄새가 묻은(일본에서의 시절이 담긴) ‘일제’이다.

화학자 김성재는 피곤한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리 넓지 아니한 실험실 내로 왔다 갔다 한다. 서향 유리창으로 들어쬐는 시월 석양빛이 낡은 양(洋)장판에 강하게 반사되어 좀 피척(疲瘠)하고 상기한 성재의 얼굴을 비춘다. 성재는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네 걸음쯤 남으로 가다가는 다시 북으로 돌아서고, 혹은 벽을 연(沿)하여 실내를 일주하기도 하더니 방 한복판에 우뚝 서며 동벽에 걸린 **팔각종**을 본다. 이 종은 성재가 **동경서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실험실에 걸기 위하여 별택(別擇)으로 사온 것인데, 하물(荷物)로 부치기도 미안히 여겨 꼭 차중(車中)이나 선중(船中)에 손수 가지고 다니던 것이다. 모양은 팔각목종에 불과하지마는 간은 꽤 정확하게 맞는다. 이래 칠 년간 **성재의 평생의 동무**는 실로 이 시계였었다. 탁자에 마주 앉아 유리 시험관에 기기괴괴한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 흔들고 젖고 끓이고 하다가 일이 끝나거나 피곤하여 휴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자를 핑 돌려 이 팔각종의 시침, 분침과 똑 딱딱딱하는 소리를 듣고는 빙긋이 웃는 것이 예였다. 칠년간이나 실험실 내 고단한 생활에 서로 마주 보고 있었으니 정이 들 것도 무리는 아니다.²⁷⁾ (15-16면)

이 시계는 김성재가 동경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귀국하는 길에 실험실에 걸기 위해 사온 것이다. 국내 이공학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팔각종이 7년간의 실험기간 동안 유일한 동무였다고 한

27) 이광수, 『개척자』 춘원 이광수 전집 2, 태학사, 2019. 이하 『개척자』 인용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다. 마치 조선의 대중은 자신의 연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칠 년 동안 집안의 재산이 스러져가고 성순도 같이 슬퍼하였지만, 성재는 시계에 부끄럽다고 한다. “이번 계획을 세운 뒤에도 성공할 듯 할 듯하면서 실패한 것이 벌써 두 번이나 되었다.”(20면) 그런데, 이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가 없다. ‘발명에 열중’(24면) 발명의 지(志)를 품고 실험실을 꾸렸을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였으나 성순만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허하였다. 성순은 성재를 ‘동경 오빠’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호칭이다. 성재는 성순에게 동경 유학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다. 여자 교육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말뿐일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자신의 실험에 집안 돈을 다 쓰고서도 걱정은 성순이 하고 돈을 구해오는 것도 성순이 한다.

그 시험관에는 황갈색 액체가 반쯤 들어서 가만히 있다. 성재는 빨리 탁자 앞으로 걸어가서 그 시험관을 쳐들어서 서너 번 찢레찢레 흔들어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의자에 필씩 주저앉으며 주정등(酒精燈) 뚜껑을 열고 바쁘게 성냥을 그어서 불을 켜놓은 뒤에, 그 시험관을 반쯤 기울여 그 불에 대고 연해 빙빙 돌린다. 한참 있더니 그 황갈색 액체가 펄럭 펄럭 끓어오르며 관구(管口)로 무슨 괴악한 냄새 나는 와사(瓦斯)가 피어 오른다.(16면)

성재는 수증기가 그치기를 기다려서 다시 그 시험관을 주정등에 대고 아까 모양으로 빙빙 돌린다. 그 **황갈색 액체**는 아까보다 조금 담(淡)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황갈색대로 부글부글 끓으며 잠깐 쉬었던 악취를 발한다. 일심(一心)으로 시험관을 보고 앉았는 곁에서는 그 **팔각종**이 푹푹 딱딱하면서 주인의 실험하고 앉았는 양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주인의 얼굴에는 기쁜 듯한 미소와 걱정스러운 듯한 찡그림이 몇 분간을 새어 두고 번갈아 왕래한다.(16-17면)

가족이 일생에 먹을 것을 성재의 손으로 온통 시험관에 넣고 말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시험관에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만일 성재의 계획이 성공이 되어 **목적한 발명품**이 여러 나라의 전매특허를 얻고 경성에 그 **특허품을 제조하는 대공장이 서는** 날이면 성재의 몽상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만일 아주 실패하는 날이면 성재의 일가 죽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29면)

발명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발명하고자 하는 추상적 당위와 시험관을 꿰이는 행위만 있을 뿐이다. 김성재는 목적한 발명품이 무엇인지도 드러나지 않은 채 성공을 희망하며 그 발명품으로 대공장이 들어서서 막연한 상상²⁸⁾을 한다. 성재의 상상은 ‘민족 영웅’으로서의 고고하고 거룩한 면모와 발명품이 실현되어 권세를 누리는 모순적인 이미지의 충돌과 갈등을 드러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학실험을 하는 성재는 식민지 지식인의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의 ‘풍경’ 혹은 ‘배경’으로 기능하면서, 주위와 고립된 천재적 발명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근대적 ‘영웅’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철세계』의 장수촌이 마극이 연철촌의 발전된 제조기술을 유입해 온 후, 장수촌의 옛것을 개조하고 연철촌의 과학기술로 부국강병을 꾀하려는 욕망이 있었듯이 성재 역시 발명이 성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유학과 동기들처럼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 성재의 화학실험은 식민지 조선을 구하는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과 가족 부양의 책임을 위한 것이다. 유학하고 돌아온 성재가 신식 발명을 동경하면서도, 가족 부양에 대한 전근대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귀국 후 유학과들이 겪어야 했던 모순과

28) 막연한 상상이라기보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장이 12.6배로 늘어났다. 방직공장에 다니는 직공들이 늘어나면서 공장 설립은 발명에 따르는 꿈의 그림이 되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인 공장보다 일본인 공장 수가 규모나 생산액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며, 그에 비해 한국인 공장은 열세하고 생산액도 낮아져 갔다. (『일본자본의 왕성한 침투』,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47_0020_0020_0060_0030

총돌의 갈등 양상이었다.

전 세계에 특허를 내고 공장이 들어서는 당시 발명가의 삶이나 발명 기계들은 ‘실물’이 아니라 기사나 광고 매체에 실린 소식으로 접한 서구의 신문물이라고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이미지였다. 합성섬유, 인조섬유, 석탄에서 염료의 발견, 오줌에서 인의 발견, 전기로 가는 시계 등 들리는 것은 많은데 실물로 접할 수가 없었던 시대에 이들의 ‘화학실험’ 역시 한 장의 기사 속 사진이나 풍경의 이미지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꿈꾸었던 최대의 목표가 ‘공장’ 설립이었던 것은, 그 꿈의 실현이 일본이 조선 땅에 세운 공장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조선에 돌아온 유학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자본과 권세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 신문물에 경이와 충격을 받았다가 조선으로 귀국한 후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는 전통과 관습이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하다. 조선 청년이 일본에서 부르짖던 애국계몽운동이 구습타파와 민족계몽을 부르짖는 신·구의 갈등과 대립으로 전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17년 『청취자』와 같은 해에 『청춘』²⁹⁾에 실린 이상춘의 「기로」의 문치명은 경성에서 유학하며 응용화학에서 염료 만드는 법을 공부하였다. “구주전쟁으로 인하여 **염료**가 비싸졌으니 이 틈을 타서 **공장을 설립**하여 염료를 제조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³⁰⁾ 그래서 형치선으로 인해 몰락한 집안을 일 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29) 『청춘』은 최남선이 청년들로 구성하여 신문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담은 잡지이다.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세대는 구습 타파와 서구 문물의 수용을 사명처럼 여긴다. 최남선 역시 일본에서 유학한 일본 유학생 집단으로 『태극학보』에 여러 편의 시론과 논설을 실는다. 애국계몽운동을 하다가 후에 친일의 길을 간 것 역시 이광수의 궤적과 흡사하다. 이들에게 신문물 수용이나 서구 발명과학은 ‘조선적인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30) 1930년대 창간된 『과학조선』에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발견된 염료 색깔이라든가 하는 화학 발견에 대한 기대가 넘쳐났다.(최예순, 『공상과학의 재발견』, 서해문집, 2022, 126-127면 참조)

당시 발명·발견이나 새로운 화학 용법은 ‘기적’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착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발명·발견이라는 발명이 직업에 내재된 것은 한탕주의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어리석음이다. 돌맹이를 금덩이처럼 품는 「라디움」의 대중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발명이 꿈을 키우는 문치명이나 일본 유학까지 하고 돌아와서 7년 동안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성공을 꿈꾸는 김성재나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중이 정말 생계를 위해 그 돌의 값어치도 모르고 팔았다면,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엘리트 지식인은 일본 대중이 하는 일과 분리하며 자신이 하는 발명을 조선 민족 전체와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대단한 것으로 부르짖는다. 그러나 기실 권위와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그들이 직업생활에 의무를 하지 않는 롭펜인 자신을 허울 좋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흙』에서 모든 인물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데도 ‘발명가’ 직업을 가진 이를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서도 당시의 발명가가 동경받는 직업이었고 ‘후원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재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초빙을 받았으나 결코 백 원이나 이백 원의 월급에 뜻이 있지 않다고 하며 자신이 칠 년 동안 한 이 일에 일생을 바칠 각오를 한다. 백 원이나 이백 원의 월급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김성재는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우월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만심과 엘리트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³¹⁾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에 났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에 살아야 하겠다.’라는 성재의 결심은 신념이요 신앙에 가까운데, 도대체 무엇을 해서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

31) 이는 『무정』의 이형식에 대해서도 보인다. 이형식은 학교에서 퇴출당하고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생들과 학교 맞을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삼랑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연설에서도 문명을 통해 구제해야 할 대상을 ‘저들’(일반 대중)이라고 하고, 구제할 주체는 ‘우리들’(형식과 병육 일행)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오연옥은 이러한 경계가 “지식인 스스로 가진 특권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오연옥, 「근대소설에 나타난 과학과 교통기술의 매체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1집, 2015.12, 416면)

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성재의 집을 가차압한 함사과는 “무엇을 하노라고 그러는지 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서 무슨 유리통을 불에다 쪼이고 있어.”하고 비웃으며 성재의 화학실험을 ‘비생산적인’ 작업이라고 조롱한다.

성재가 찾아가는 이들은 모두 동경에서 같이 유학한 동기들이다. 『개척자』는 일본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이 조선으로 귀국한 뒤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다양한 군상을 보여준다. 일본 유학생 잡지에서 애국계몽을 부르짖던 이들이 귀국해서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성재처럼 ‘룸펜’으로 지내기도 한다. 동경 유학 시절에 같이 있었던 이 변호사는 “그가 법과 이년 적에 꽤 값나가는 세비로(일본어) 양복 한 벌을 신조(新調)하였을 때에는 입바른 친구들은 그를 **정탐(偵探)**이라고 한 일도 있었다.”(42면)고 성재의 시각으로 묘사한다. 일본 유학생들이 ‘밀정’, ‘친일’한 자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이 군뿐 아니라 성재의 동기생들은 대개는 **훌륭한 신사**가 되었다. 혹은 중등 정도 학교의 교장이 되며, 혹은 은행의 지배인이니 취체역(取締役)이니 하고 서슬이 푸르며, 혹은 관검사, 혹은 변호사 하고 조선에 있어서는 일류 인물로 자기도 임하고 남도 허하게 되었다. 길에 나서면 반드시 인력거를 타고 차를 타면 반드시 백표(白票)나 청표(靑票)를 탄다. 양복 의복에 미투리 끌고 다니는 자는 실로 성재밖에 없을 것이다. 동경서 같이 학교에 다닐 때에는 최연소자 되는 자기에게 수학 문제도 묻고 화문(和文) 영역(英譯)이며 작문 같은 것도 의뢰하던 그네들은 지금 와서는 모두 다 **번쩍하는 신사**가 되었다.(45면)

1917년 『개척자』는 일본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귀국해서 나라가 주권이 없어졌음에도 대부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잘살고 있음을,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작업을 하며 번쩍하는 신사로 살지 못하고 있는 김성재의 시각

으로 보여준다. 황중연은 ‘과학자’가 개화 조선이 1910년대까지 산출한 남성 엘리트의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논한 바 있다.³²⁾ 그들이 외쳤던 애국계몽과 부국강병은 무엇이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개척자』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식인들이 일본에 있을 때 부르짖었던 조선의 정치적 독립과 ‘애국계몽’을 외치기에는 조선 사회가 너무 달라졌음(일본에서 신문물을 접하고 나서 조선으로 귀국 후) 보여준다. 그러나 변쩍이는 신사가 된 동기들과 달리 직업이 아닌 직업인으로 사는 ‘과학자’ 성재 역시 세상을 구하겠다는 외침과 달리 실체가 없는 발명을 하며, 자신이 동경 유학 시절 그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월했음을 과시하는 엘리트 의식이 깊게 박혀 있다. 성재의 엘리트 의식은 유학과 동기들에게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학하고 돌아온 신문물을 접한 ‘우월한’ 자기는 일반 민중과는 다른 삶, 발명에 성공하여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는다. 『개척자』에서 서구 신발명을 받아들여 시대를 앞서고자 했던 ‘과학자’는 근대적 영웅의 면모로 제시되었지만,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실체가 없는 발명·발견이었기 때문에, 조선 민중의 구체적인 생활 속으로 섞이지 못하고 유리됨으로써 영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발명에 성공한 ‘과학자’가 되지 못한 ‘개척자’로 실패와 좌절을 곱씹어야 했다.

2) 의사 안빈과 연구자 안빈 사이, 화학발견과 죽음의 신식 풍경- 『사랑』

이광수의 『사랑』에서 의사 안빈은 의사로서의 면모보다 연구하고 실험하는 ‘박사’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된다. 동물에게서 피를 뽑아 공포와 분노의 감정을 연구하는 실험은 토끼, 개,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의 광경이 1938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그러

32) 황중연, 「신 없는 자연- 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집, 2012.9, 147-152면 참조.

지고 있다. 이 광경은 현재의 독자에게는 ‘동물실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있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광수 소설은 당시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유행하는 용어와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 화학실험에서의 ‘발견’, 물리학의 ‘발명’, 그리고 ‘발명가’라는 직업까지 작품 곳곳에 소재로 차용하고 있다. 이광수는 일본 유학과 더불어 ‘과학’을 받아들이며, 그 과학이 국내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혹은 유학생 집단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포착해낸다. 『개척자』에서 실험하는 화학자의 모습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려냈다면, 『흙』에서는 ‘발명가(과학자도 아니고 화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닌)’라는 직업을 가진 인물을 처음으로 등장시켰다면, 『사랑』에서는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화학에서의 ‘발견’이 물리학에서의 발명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과 동물의 피를 뽑아서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세 번이나 되풀이한 끝에 일 년 만에, 안빈은 공포 후의 **개 제 이호(동물에는 모두 번호가 있었다)의 혈액**에서(이것은 나중에 붙인 이름 이지마는) **‘안피노톡신 제일호(Anpinotoxin No 1)’**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독소로서 운동중추를 마비하여 사지가 힘이 없고 떨리기만 하고, 입도 잘 벌어지지 아니하고 눈이 곧아오고, 호흡이 얇아지고 침이 마르고, 오줌똥이 저절로 나오고, 신체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임과, 또 이 독소가 혈액에 있어서 백혈구를 중독시켜 그 기능이 심히 약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백혈구의 수가 준다는 사실도 **발견**되었고, 그 화학적 구성식도 대개 판명되어서 탄소, 질소, 인 등의 결합물인 것까지 판명되었을 때의 그의 기쁨은 비길 곳이 없었다.(『사랑』, 60면)

응급처치가 끝난 뒤에³³⁾ 안빈은 곧 두 사람의 피를 가지고 **실험실**에

33) 이광수, 『사랑』 춘원 이광수 전집 17, 태학사, 2019. 이하 『사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하리라고 한다.

들어가 자기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 검사하기를 시작하였다. 안빈의 얼굴에는 시시각각으로 만족한 빛이 떠돌았다. 성난 동물의 혈액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독소가 사람의 혈액에서도 발견됨을 알았을뿐더러 또 한 가지 예기하지 아니하였던 큰 발견을 하였으니, 그것은 칼 맞은 사람의 혈액 속에 **아드레날린과 비슷한 어떤 일종의 특수한 반응을 가진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이 물질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끝에 알아낸 것이거니와, 상당히 강하게 알칼리성을 가진 것으로 동물의 혈액에서 검출되는 독소를 중화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분노로 말미암아 혈액에 생긴 독소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생리적 자위력(自衛力)으로 분비된 것이 분명하건마는, 대체 이것을 분비하는 기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을 돌파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실로 우스운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속담에 뱃심 좋은 사람을 비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토끼의 비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한 뒤에 그 토끼에게 공포 또는 분노에서 생기는 혈액 중의 독소를 주사하면 그 주사의 효력이 비장 있는 동물에서보다 시간으로 보아 십 배 이상이나 긴 것을 발견하였다.**(64면)

식민지 지식인의 과학에 대한 도입이나 유입은 ‘지식’을 알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 지식을 활용하여 의학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거나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 자체의 발견, 무지에서의 탈피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들의 관심은 대중의 구제 혹은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개인의 지식 창출이나 성공 혹은 업적이 아니었을까 한다. 과학으로 부국강병이나 애국계몽을 이룰 수 있다는 주창에서도 과학으로 이루고자 하는 ‘실체가 없다. 『개척자』의 김성재도 7년 동안 실험실에서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며, 『사랑』의 안빈의 ‘감정’ 실험의 목적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의사로서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지식’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안빈 개인의 만족만 드러나 있다.

진화의 한량없는 계단에 그러한 높은 존재가 없으랴 범이 있을까? 다만 거친 것만을 보기에 족하도록 생긴 우리 눈이 마치 **엑스선**이나 **우주선**을 보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보다 높은 존재를 보고 분별할 힘이 없을 뿐이 아닐까?(69-70면)

높은 존재는 하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종교적 존재와 동일시되는데, 그 안에 엑스선이나 우주선이 동일시되는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과학이나 종교를 새로운 문물이나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들여와서 민족개조를 부르짖으며 조선 민중을 미개하고 우매하다고 인식하도록 했다. 식민지시기 발명·발견은 부국강병을 이루고 주권 잃은 나라를 구제할 수 있는 낙관적 기대를 품게 했지만, 동시에 조선 민중을 우매하고 미개하여 계몽하고 개조해야 한다는 사상을 낳기도 했다. 『철세계』의 장수촌이 가진 이 중성에서 내포된 문제는, 식민지가 된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이어진다. 실험실이라고 하기에는 재료나 도구의 풍경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안빈의 실험실에서의 재료는 동물의 피이거나 인류의 피(안빈과 석순옥의 피)이고,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에서는 똥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실험실은 사치였으며, 실제로 굴러가는 데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책에서 읽은 것이나 기사에서 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진 풍경이어서 무엇을 실험하는지도 모르는 채 시험관 약병을 끓이기만 하거나, 피에서 뽑은 추출물을 알아내는데 뜬금없이 ‘**현미경**’이 등장한다. “아버지 병원에 **연구실**이 있어. 거기는 아무두 못 들어가. 정말야. 아버지밖에 못 들어가. 거기 별거 다 있어요. **현미경**두 있구. 피두 있구. 들어감 야단 만나.”(38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연구실 혹은 실험실은 지식인들의 권위 의식의 상징이 된다. 김동인의 「거치른 티」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실험실과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던 남편의 연구는 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이광수의 『사랑』에서 안빈의 아내 옥남이 죽는 장면에서도, 석순옥의

남편 허영이 죽는 장면에서도 모두 탈 것이 왔다 혹은 “자동차 왔어. 어머니, 자동차 왔어.”(711면)라고 한다. 죽는 순간 사진기를 보여주고 자신을 데려갈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고 하는 표현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³⁴⁾ 신문물, 새로운 발명품인 자동차가 경성에 등장하고 전차가 다니고 하는 풍경은 죽음의 풍경마저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의 풍경조차 과학 발명 탈 것이 등장하는 ‘신식’으로 바뀌었는데, 석순옥의 전남편 허영과 시어머니 한씨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석순옥에게 악다구니를 치며 그녀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원망을 쏟아내는 ‘전근대적인’ 시각이다. 바깥의 신문물이 들어온 세상에서 여전히 남편의 아내 혹은 여성에 대한 멸시와 대우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이광수 소설의 인물은 실험하고 연구하고 신지식 신사상을 받아들인 지식인임에도 아내, 여동생,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전근대적이고 모순투성이이다. 이광수 소설에서 발명 발견을 통한 민족계몽이 모순되는 부분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앞다투어 발명·발견을 부르짖었지만, 매번 그들의 실험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취한 과학을 향한 부르짖음이 실체가 없는 ‘포즈’나 ‘허울’이었기 때문이다.

석순옥의 사랑에 대해서 정혜영은 기묘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³⁵⁾, 최주환은 민족을 위한 전향이라는 이광수의 정치적 이율배반을 해명하기 위한 내적 곤경³⁶⁾이라고 해석한다. ‘안빈을 위한 희생’이 그토록 지고지순

34)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온다는 영혼에 대한 믿음과 과학기술의 최대발명인 자동차가 결합하여 기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기차와 자동차가 도입된 이후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죽음과 이들 탈것을 연관시키는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오연옥, 「근대소설에 나타난 과학과 교통기술의 매체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1집, 2015.12, 431-434면 참조)

35) 정혜영, 「1930년대 ‘연애소설’과 사랑의 존재방식-이광수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7, 2011.7, 333면 참조.

36) 최주환, 「또 하나의 전향서」, 『사랑』 춘원 이광수 전집 17 작품해설, 태학사, 2019, 733-744면.

하고 ‘아우라몬’이라는 순수한 영혼 소유자의 피를 가진 석순옥에게서 독자는 이율배반이나 기묘함, 모순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실험하는 화학자 김성재를 비롯하여, 발명가, 의사 사 등의 과학발명·발견을 꿈꾸는 인물이 종종 등장하지만, 그의 소설을 ‘과학소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국 최초 창작 과학소설로 평가받는 것은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1929)이다. 이광수의 소설이 과학발명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도 과학소설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험의 구체적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김동인의 과학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은 실험의 구체적인 대상(목적)이다. 「거치른 터」에서 영애의 남편은 경제적인 타이프라이터를 발명하려 하고, 「K박사의 연구」에서 K박사는 똥으로 식량을 개발하려고 한다. 김동인의 소설이 이광수의 소설이나 초창기 번역된 「해저여행기담」과 다른 점은,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는 애국계몽으로서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동인의 소설은 정치소설이 아닌 과학소설로 읽힐 수 있다.³⁷⁾

이광수와 김동인의 소설 모두 과학자가 등장한다.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발명가’라는 직업으로 일컬어지고,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과학자’로 지칭된다. 김동인의 「목숨」에서는 시를 쓰는 M과 대비되는 과학자인 ‘나’가 등장한다. 이광수의 소설에서도 과학자와 예술가는 대비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광수의 소설 『사랑』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인물은 의학자이며 연구자인 안빈이거나 순옥(간호사에서 나중에 의사가 된다)이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의 식민지시기의 소설에서 죽음은 서사의

37) 다만 「거치른 터」가 영애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후반부가 영애의 이상 심리를 다루고 있다면, 「K박사의 연구」는 끝까지 실험에 몰두하는 연구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치른 터」에서 제기된 ‘심리학’도 과학소설의 한 범주로 간주된다면, 최초의 과학소설은 「거치른 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김동인의 다른 소설 「목숨」도 심리학으로 접근한다면 과학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죽을 이루고 있다.³⁸⁾ 이광수의 『사랑』에서 안빈의 아내 옥남이도 몸이 좋지 않아 얼마 살지 못한다. 김동인의 「거치른 터」에서 영애의 남편도 죽고 「목숨」에서도 늘 죽음의 사자가 따라다닌다. 발명·발견은 민족계몽과 부국강병의 수단이면서 죽음과의 사투에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냥 ‘과학’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혁명’으로서의 발명·발견이어야만 한다. 신문물이 도입되던 시기에 발명·발견으로서의 과학도 과학기술 자체의 도입이라기보다 문명개화로 부국강병을 이룩하자는 의도와 취지가 앞서는 내용보다 ‘형식’으로 시대와 부딪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장서서 민족계몽을 부르짖고 ‘과학으로 이루는 부국강병’을 외치던 이광수와 김동인은 모두 친일의 길을 걷는다. 식민지 지식인의 실험이 늘 실패로 끝나는 것은, 그들의 민족계몽과 부국강병이 일본 유학을 통한 발명·발견 신문물의 ‘형식’에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 없이 형식을 추구하다 보면, 신문물은 조선이 아닌 일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받아들인 신문물은 과학기술보다도 진기한 발명·발견의 우연한 일확천금의 확률, 고귀한 천재적 발명으로 조선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다는 영웅 의식의 표상으로 신문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민중으로부터 ‘유학한’ 자신을 분리하며 군림하고 있었다.

5. 친일과 민족계몽 사이의 모순

「해저여행기담」에서 애국계몽을 외치던 일본 유학생들은 귀국 후 일본

38) 권보드래, 「헌미경과 엑스레이- 1910년대, 인간학의 變轉」, 『한국현대문학연구』 18, 2005.12, 34-35면. 권보드래는 ‘죽음’과 ‘인생’의 발견은 ‘거대한 신체’ 대신 강조된 ‘작은 신체’의 차원에서 뒤따르는 수순이라고 한다. ‘거대한 신체’ 안에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망국 이후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개체라는 생물학적 ‘작은 신체’뿐인데, 이걸 너무 연약한 근거라는 것이다. 학생, 유학생이 생산한 1910년대 단편소설에 ‘죽음’이 만연하고 있음은 이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34-35면)

에서의 신문물에 젖은 서구에 대한 동경으로 조선의 옛것을 타파하고 민족을 개조하자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조선의 구습을 타파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일본’을 통해 경유한 것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은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 신문물과 예전의 낡은 것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되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외치던 과학은 서구 문물이었고,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향수였을 수 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애국계몽과 조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외칠 수 있었다면, 귀국 후에는 그 격차로 인해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던 식민지 유학생 집단의 작품 속 인물을 따라가 보았다.

이광수도 대표적인 일본 유학생이며, 일본 유학생 잡지 『대한홍학보』 11호에 「무정」과 「문학의 가치」를 실었다. 이광수는 귀국하여 1917년 『매일신보』에 『무정』과 『개척자』를 발표하는데, 이 두 작품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성이 투영되어 있다. 『개척자』의 화학자 김성재는 7년간 실험실에서 화학 약품을 끓이며 세상(조선)을 구원할 발명과 발견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애지중지하는 팔각종 시계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사서 가지고 온 ‘일본’ 제품이다. 여동생 성순에게 자신이 성공하면 일본 유학시켜 주겠다고 하며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신사상을 받아들여서 깨어 있는 자로 보이지만, 그녀가 가문에 돈줄이 되지 않는 남자(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자 집안끼리 맺어 준 혼처를 강요하는 구세대적이고 모순된 면모를 보인다.

일본 유학생들의 신문물 도입이나 ‘과학발명’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하자³⁹⁾는 애국계몽운동이 조선으로 귀국 후 구습타파와 민족계몽으로 나아가면서, 유학한 그들과 조선 민중은 마치 친구 세대의 표상인 것처럼 분

39) ‘과학은 곧 국민의 상식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과학의 급선무’를 설파한다.(김영재, 「과학의 급선무」, 『태극학보』 20호, 완역본 4권, 보고사, 2020, 251면)

리되어 나갔다. ‘애국계몽’을 신문물을 도입한 신지식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도 모순적이다. ‘애국’과 ‘신문물’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통을 고집하는 선비들이나 유학과 지식인들이 모두 ‘애국계몽’을 부르짖는 아이러니를 빚어내게 된다. 그러나 신문물의 도입으로 새로운 발명·발견에 현혹된 이들은 결국 조선의 옛것을 타파하고 조선 민족이 비위생적이어서 개조해야 한다는 일본과 같은 논리를 펼치기에 이른다. 애국계몽으로 시작했던 일본 유학생 집단의 조선 지식인들이 왜 조선 독립을 위한 길이 아닌 친일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대한제국 말기의 신문물이나 신사상 유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 유학생 지식인층의 애국계몽운동은 결국 조선 민중과 유학과인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조선의 전통과 서구 신문물을 구분하면서, 옛것을 고집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적인 것’ 대신 새로운 발명·발견 기계로 미래가 보이는 일본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의 일본 선택에는 민족계몽이나 민족 구원을 위한 욕망보다 자신의 앞날과 번쩍하는 신사로 살기를 바라는 입신양명에 대한 욕구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강정구, 「근대계몽기의 기계 표상- 이해조의 번안소설 『털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문예비평연구』 제64집, 2019.12, 161-184면.
- 강정구, 「근대 계몽기의 과학소설에 나타난 기계 표상」,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8호, 2020.12, 111-134면.
- 권보드래, 「현미경과 엑스레이- 1910년대 인간학의 變轉」, 『한국현대문학연구』 18, 2005.12, 19-40면.
- 김중방, 「한국 과학소설의 성립과정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2009.12, 1-84면.
- 김중수, 「“유토피아”의 한국적 개념 형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52집, 2018, 253-275면.
- 김중욱,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2, 2003, 281-304면.
-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비교한국학』 27권 2호, 2019.8, 61-89면.
- 박주현, 「1900년대 과학소설 속 영웅 형상과 구국의 논리- <해저여행>과 <철세계>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제37집, 2022.8, 81-116면.
-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14, 2003.12, 143-171면.
- 손성준, 「『태극학보』의 <역사담> 번역과 그 정치적 지향: 개신교와 『태극학보』의 연관성 시론」,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287-322면.
- 오연옥, 「근대소설에 나타난 과학과 교통기술의 매체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1집, 2015.12, 407-445면.
- 이학영, 「김동인 문학에 나타난 복잡성의 인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1, 2013.12, 465-493면.
- 이학영,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담론 전유 양상- 이해조·이광수·김동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8.8, 1-213면.
- 전은경, 「『태극학보』의 표제 기획과 소설 개념의 정립 과정」, 『국어국문학』 171, 2015.6, 605-638면.
- 전은경, 「『태극학보』의 몽유록계 서사와 근대문학으로서의 가능성」, 『어문론총』 89호, 2021.9, 281-313면.
- 정하늬, 「신시대 과학기술·과학기술자의 표상- 이광수의 『사랑』과 이복명의 『빙원』

- 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7집, 2016.12, 337-360면.
-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 이인직의 〈血의淚〉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2003, 193-214면.
- 정혜영, 「1930년대 ‘연애소설’과 사랑의 존재방식- 이광수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7, 2011.7, 323-350면.
-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 『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68호, 2020.9, 131-170면.
- 황중연, 「신 없는 자연- 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36집, 2012.9, 143-182면.

2. 단행본

- 이용남 외,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태학사, 2000.
- 이광수,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1.
- 이지용, 『한국 SF 장르의 형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최애순, 『공상과학의 재발견』, 서해문집, 2022.
- 최애순, 『한국 과학소설사』, 소명출판, 2023.

<Abstract>

Progress of novels based on inventions
and discoveries during the late Korean Empire
and colonial period

– Awareness and acceptance of ‘invention’ by intellectuals of
a group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Choi, Ae-soon

The early science novels *The Strange Story of Undersea Travel* and *The Iron World*,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late Korean Empire, contain stories of curiosity and longing for the invention and discovery of Western civilization, lamenting the unfortunate and frustrating reality of Joseon against this, and calling for the breaking of old customs. Japanese students' admiration for Western culture and their will to enlighten themselves about the reality of Joseon were the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 that came through Japan. In addition, as part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science' was promoted, inventions and discoveries were encouraged, and historical stories and biographies of heroes were included to inspire patriotism. However, the group of students living in Japan who actively accepted Western culture as part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formed an intellectual clas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unexpectedly aligned themselves with the domestic nationalist line.

This paper examines how translations of science fiction, which came as part of patriotic enlightenment in 1907 and 1908, influenced subsequent domestic novels. While studying abroad in Japan, Lee Kwang-soo also

wrote articles for a magazin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Japan, creating novels that fully capture the sentiment of the magazin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 group. Lee Gwang-su's life allows us to learn what activities a group of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did after returning to Joseon and what the scientific inventions they believed in meant to them. Rather than Lee Kwang-soo's perception of scienc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how 'invention science' was introduced and accepted as a heterogeneous and contradictory landscape by Joseon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cluding inventions and discovered materials as news items depicted in his works, and chemical experiments perceived as landscapes. I want to go see it.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a group of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inventions, discovered materials and landscapes, and how it was perceived from *The Strange Story of an Undersea Travel* published in a magazine for Japa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to the novels of Lee Kwang-soo, who had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in Japan. I went there. Therefore, rather than Lee Kwang-soo's personal awareness of science, we consider Kim Seong-jae revealed in *The Pioneer* as a representative symbol of a colonial student, and try to follow the characters in the work. The reason why the term 'invention/discovery' was used instead of 'science' was because the focus was on the machines, technologies, or landscapes of inventions/discoveries rather than scientific awareness. Even though they borrow materials from inventions and discoveries, Lee Gwang-soo's *The Pioneer* and *Love* cannot be classified as 'science fiction' because they do not directly use the term 'scienc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why the actions of characters in novels about 'inventions and discoveries' are full of contradictions, and why 'science', which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nd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did not lead to the

enrichment of the nation. d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of Japanese students who were the first to introduce science or industry (science and engineering) and science fiction clash with the life they lived after returning to Joseon, and the inventions and discoveries that have no substance and the inventions and discoveries that do not succeed and always repeat failure. I want to show this through their experiments in the novel. I would like to follow *The Strange Story of an Undersea Travel* and *The Iron World*, which were first introduced into Korea, and the domestic original novels *The Pioneer* and *Love* by Lee Kwang-su, which were influenced by these works.

Key words: Korean student in Japan, patriotic enlightenment, national reform, Lee Kwang-soo, invention, discovery, intellectual, rich country and strong military, pro-Japanese, *The Strange Story of Undersea Travel*, *The Iron World*, *Pioneer*, *Love*

투 고 일: 2023년 7월 31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